

여진족 추장 하질이(何叱耳)의 실록상 이표기에 대하여*

김 주 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조선왕조 전반기 즉 17세기까지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진족에 대한 기록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 그들은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늘 위협하는 존재였으므로 그들의 동정 파악을 위해 눈을 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진족은 한 무리의 씨족이 아니라 여러 족류가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관계나 신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요구나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록 가운데에서 매우 특이한 표기로 기록된 한 여진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자유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한국학중앙연구원, 2008년 9월 22일, 서울)에서 발표한 논문인 ‘조선왕조실록의 한 여진족 추장 인명의 표기에 대하여’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을 심사하여 더 나은 논문이 되도록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 드린다.

주 제 어: 차자 표기, 여진족, 조선왕조실록, 음독, 훈독, 인명
transcription, Jurchen,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emantic value
of Chinese characters

족 추장의 인명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 추장의 이름은 “하질이(何叱耳)”이다. 이는 만주어 /hashū/를 표기한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논의하면서 그의 이름을 나타낸 여러 표기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¹⁾

이 글은 실록에 나타난 인명의 이표기를 논의하는 글이지만 아래에서는 언어학적 설명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실록이라는 텍스트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여진족에 관련된 기록의 대부분은 직접 문서를 주고받은 것 또는 임금과 신하간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국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보고서를 사초로 하여 기록해 놓은 것일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것이어서 보고서마다 내용이 엇갈리거나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내용들은 앞뒤의 여러 기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실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실록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들을 대비하면서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음을 미리 말하여 두고자 한다.

1. 누르하치²⁾의 해서여진 통일

해서여진이란 海西江 즉 지금의 송화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족을 일컫는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여진은 16세기 후기에 이르면 建州女眞과 海西女眞으로 세력이 집중된다. 건주여진은 명 초기에 건주삼위로 불리던 것으로 건주위, 건주좌위, 건주우위가 있었는데 16세기 후기에는 건주 5부(즉, 숙수후하부(蘇克素渾河部, Suksuhu), 후너허하부(渾河部, Hunehe), 왕가부

- 1) 줄고(2010)에서는 여진인·만주인들의 인명 표기를 논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何叱耳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룬 바 있다.
- 2) 그의 이름은 玉璫(1697년)에는 Nurgaci로 나타나며(閔崇年 1983: 1 참조) 만주실록에는 Nurhaci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조선조의 실록의 기록에는 ‘노가치’ 또는 ‘노라치’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무수히 나타난다(아래의 (21) 참조).

(完顏部, Wanggiya), 동고부(董鄂部, Donggo), 저천부(哲陳部, Jecen))와 장백산 3부(압록강부(鴨綠江部), 주서리부(朱舍里部, Jušeri) 너연부(訥殷部, Neyen))로 재편된다. 누르하치는 1583년에 기병하여 1588년까지 건주 5부를 통일하고, 1593년에 이르러 장백산 3부도 점령함으로써 건주여진의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 1587년에는 피알라성(費阿拉城, Fe Ala)³⁾을 건설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게 된다.

해서여진은 달리 홀룬(扈倫, Hūlun)⁴⁾ 4부로도 불리는데 여허(葉赫, Yehe),⁵⁾ 하다(哈達, Hada), 회파(輝發, Hoifa), 올라(兀拉, Ula)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여허와 하다의 세력이 비교적 컸다. 이들은 朝鮮과 明 양쪽을 오가면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유지, 확장하고 있었다.

건주여진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주변의 정세를 이용하여 해서여진의 정복에 나서게 된다. 해서여진은 그 이전에 명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아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진 터였다. 1583년에 명이 여허의 주장인 칭가노(淸佳努, Cinggiyanu)와 양기노(楊吉努, Yangginu)를 유인하여 죽임으로써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이 그 첫째이며, 둘째는 1587년에 하다부를 공격하여 주장인 멩거불루(孟格布祿, Menggebulu)를 공격하고 습직되어 오던 龍虎將軍이라는 관직을 회수하였으며, 셋째는 1588년에 명의 이성량이 여허산성을 공격하여 거의 모두를 죽이고 파괴한 것이 그것이다. 게다가 조선 반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남으로써 명과 조선이 모두 여진족에게 관심을 돌릴 틈이 없었던 것도 누르하치가 흥기하게 된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통일된 건주여진의 세력 팽창을 경계하던 해서여진은 건주여진과 통혼을 통한 연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통혼을 통한 연합은 여진족 사회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즉 하다의 호르간(扈爾干, Hūrgan)은 그의 딸을 누르

3) 이 성은 만주어로 Fe Ala 즉 구강(舊岡)을 의미하는데 건주여진의 수도가 있던 곳이다. 이 성에 대해서는 1595년 이 성을 방문한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자세히 나와 있다.

4) 실록에는 홀라운(忽刺溫) 또는 홀온(忽溫)으로 표기되어 있음.

5) 이하의 로마자 표기는 <滿文老檔>과 <滿洲實錄>에 만주 문자로 기록된 것을 전사한 것이다. 인명, 지명, 부족명 모두 마찬가지이다.

하치에게 시집을 보냈으며, 여허의 나림불루(納林布祿, Narimbulu)는 여동생인 나라(納喇)씨⁶⁾를 누르하치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화친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무위로 돌아가자 1593년에 여허(추장 布齋, Bujai)와 納林布祿가 중심이 되어 하다(추장 孟格布祿), 올라(추장 滿泰), 회파(추장 拜音達里, Baidari)의 4부, 장백산 주셔리(朱舍里)부, 너연(納懇) 2부, 몽골의 코르친(科爾沁, Korcin), 시버(錫伯, Sibe), 괘차(卦爾察, Gūwalca) 3부 등 9부(九部)가 연합하여 건주여진을 공격하게 되었다. 전쟁의 결과는 9부 연합군의 참혹한 패전이였다. 군사상의 손실도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여허 추장 布齋가 죽었으며 올라의 추장 包占泰는 포로가 되었다. 이때의 전투에 대해서 실록에서는 1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 대개 전일 들은 바로는 여허추(如許僮) 나리,⁷⁾ 홀온추 탁고⁸⁾ 등이 지난 계사 연간에 서로 더불어 모의하기를 「노가적(老可赤)⁹⁾은 본디 이름 없는 보통 사람으로 갑자기 일어나 추장이 되고 여러 부족을 합병하여 그 기세가 점점 강대해지고 있다. 우리들은 대대로 위명(威名)을 쌓았으니, 그와 동렬에 서는 것은 수치이다.」고 하여, 불의에 병력을 합쳐 노추를 공격하여 모조리 멸망시키려고 하였는데, 노추가 첩보를 얻고서 크게 놀라 먼저 정병(精兵)을 길가에 매복시켜 놓고 고개의 낭떠러지에 기계를 많이 설치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을 따라 난 길이 좁고 험하여 적병이 대열을 이루지 못하고 수미(首尾)가 길게 늘어진 채 이르자, 그때 노추의 군대가 곳곳에서 돌을 굴러 내리니 강에 빠져 죽은 병마(兵馬)가 부지기수였다. 후군(後軍)이 놀라서 무너지니 선봉은 모두 노추에게 사로잡혔다. 이때 나리(羅里)의 형 부자(夫者)¹⁰⁾가 전사하고 홀추 탁고도 사로잡혔는데 노추가 포박을 풀어

6) 楊吉努의 딸이며, 후에 孝慈高皇后가 되었는데 청태종 홍타이지(皇太極, Hong Taiji)의 생모이다.

7) 즉 Narimbulu를 지칭함. 조선측의 고유명사 기록은 중국측 기록이나 여진측의 기록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정밀한 대조 작업을 거쳐야 한다.

8) 즉 Bujantai를 지칭함. 이 명칭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함. 앞으로 이 논문에서 주로 논하는 인물임.

9) 즉 Nurhaci의 조선식 표기임.

우대하고 성 안에 구류시켰다가 소추(小酋)¹¹⁾의 사위를 삼았다. <선조 38/07/16, 1605>

누르하치는 여세를 몰아서 하다부(哈達部) 정벌에 나선다. 하다는 하다가(哈達江, 지금의 淸河) 유역에 있었으므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성씨는 나라(納喇)이다. 홀론 4부 중 남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남관(南關)이라고도 불린다. 明 만력 초기에 왕태(王廳) 추장 때에 강성하였으며 그에게 龍虎將軍이라는 관직을 주었다. 왕태가 죽은 후 장자 호르간(扈爾幹)이 이어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으며 이어서 왕태의 제5자 孟格布祿가 추장이 되었다. 누르하치는 1599년에 孟格布祿를 사로잡은 후 그를 살해하였으며 이어 하다(哈達)는 망하고 말았다. 明으로서는 하나의 주요한 방어막을 잃은 셈이 되었다.

1607년에는 회파(揮發)를 정벌하게 되는데, 회파는 이전의 니마차부(尼馬察部, Nimaca)에 속하던 곳으로 성씨를 나라(納喇)로 바꾸었다. 추장 拜音達里는 하다(哈達)가 망한 후 건주와 여허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다가 결국 누르하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회파에 대해서는 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교에 ‘이른바 회파(回波)는 부락의 명칭인가? 어느 곳에 있으며 이는 홀추(忽酋)에 소속된 오랑캐인가? 알고 싶으니 살펴서 회계하라.’ 하였습니다. 회파는 여허(如許)의 대추(大酋)인 나리(羅里)에 소속된 부락의 명칭으로 홀론의 남쪽, 노호(老胡)의 북쪽에 있습니다. 회파의 장수는 이름을 배은달이(倍隱達伊)¹²⁾라고 하는데 나리의 차장(次將)이고 하질이(何叱耳)¹³⁾가 나리와 결혼했으니 배은달이와 하질이는 필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좋게 지내는 오랑캐일 것입니다. 회파 부락은 지세가 몹시

10) 즉 布齋, Bujai를 지칭함.

11) 즉 Surgaci를 지칭함. 누르하치(老酋)의 친동생임.

12) 즉 拜音達里, Baidari를 지칭함.

13) 즉 Bujantai를 지칭함. 이 글에서 주로 논하는 인물임.

협약하고 홀추와의 거리는 3일 일정(日程), 노호와는 7, 8일 일정에 있습니다. 노호가 홀추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회파를 먼저 제거시킨 뒤에야 진병(進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40/09/16, 1607>

(3) 함경북도 병마 절도사 유형(柳珩)이 치계하기를,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회파(回波)는 우리 변방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적들의 동정을 일일이 탐문할 수 없으나 노토 부락(老土部落), 여포차(汝包車), 건퇴(件退) 등 오랑캐가 있는 곳에는 기병(奇兵)과 간첩을 두고 소재를 탐문하여 치계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이 일에 유념하여 여러 길로 탐문한 바 이곳에서 회파까지는 도로가 몹시 멀고 산외(山外)에 왕래하는 여러 오랑캐들도 서로 통보함이 없으며 간혹 듣고 아는 자가 있어도 극비로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여 저들의 진상을 얻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대병(大兵)을 출동시켜 곧장 회파에 이르렀습니다. 내응자가 난동을 부리고 성문을 열어 병사를 맞이하였으므로 성중에 몰아 들어가니 성중이 크게 어지러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회파의 군대가 죽음으로 적을 맞아 힘을 다해 크게 싸웠으므로, 결국, 패망하였지만 노군(老軍)도 손실이 커서 전사한 장수가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파의 잔류한 장수는 3명이고 거느린 군사는 겨우 수천 명인데 지금 홀추(忽酋)에게 사람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개유하고 있다 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40/10/21, 1607>

올라는 홀은 4부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올라와 하다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했으며 그 후손인 만태(滿泰, Mantai)가 추장이다. 누르하치는 1593년의 九部연합군 전투에서 생포한 包占泰(올라의 추장 만태(滿泰)의 동생이다)를 건주여진의 본거지인 피알라(費阿拉)에 거주하게 하면서 장래를 도모하였다. 이후 누르하치는 올라의 包占泰와 5차례의 혼인관계를 맺게 된다. 즉 쇼르가치(舒爾哈赤)의 두 딸을 包占泰와 결혼시키고, 누르하치의 딸을 包占泰와 결혼시켰으며, 包占泰는 질녀 즉 그의 형 滿泰의 딸을 누르하치의 처로 결혼시켰으며, 그의 딸을 쇼르가치의 처로 결혼시켰다. 包

占泰는 실록의 기록에는 부자태(夫者太)로 되어 있으며 조선 신충일(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 술이 두어 순배 돈 후에 올라부락(兀刺部落)의 새로 항복한 장수 부자태(夫者太)¹⁴⁾가 일어나 춤을 추었고, 노추도 문득 의자에서 내려와 비파를 통기면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춤이 끝나자 광대 8명이 각각 재주를 보였는데 그 재주가 몹시 생소하였습니다. <선조 29/01/30, 1596>

(5) 부자태가 투항한 후 그 형 만태(晩太)가 말 1백 필로 아우를 속신(贖身)하였으나 노추가 허락하지 않아 만태 역시 투속되었다고 합니다. 부자태가 노추의 성중에 와 있는 지 3년 만에 20여 명의 가솔 모두를 12월 보름 전에 비로소 데려 왔다고 합니다. <선조 29/01/30, 1596>

包占泰는 3년간 건주여진에 억류되어 있다가 그의 형 만태가 죽은 후 올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 후 그는 재기를 꿈꾸며 누르하치를 배반하여 대회를 벌이게 된다. 그것이 1607년에 있었던 오갈암(烏碯巖) 전투이다. 결과는 누르하치의 대승리였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올라는 더욱 약해지고, 건주여진으로서는 우수리강 유역과 흑룡강 중하류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오갈암은 두만강변 鐘城 부근에 있는 지명인데 이 전투를 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6) 건주위(建州衛)의 호추(胡酋) 노을가적(老乙可赤)이 홀라온(忽刺溫)과 종성(鍾城) 오갈암(烏碯巖)에서 크게 싸워 대패시켰다. (중략) 육진(六鎭)의 열읍(列邑)에 행문(行文)하고는 이어 종성 오갈암에 진군하여 홀라온과 만나 크게 싸웠는데, 얼마 후 홀라온이 대패하여 기계(機械)와 우마(牛馬)를 모두 버린 채 도주하였다. 노을가적의 군대는 또 경원(慶源) 성 밖에까지 나왔다가 돌아갔다. 노을가적이 이번 싸움에서 말로는 비록 우리를 위해 우환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나 군세(軍勢)를 크게 벌여 마치 무인지경을

14) 즉 Bujantai를 일컬음.

달려가듯 우리나라의 변경을 뚫고 지나갔으니, 번호가 강성하게 된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함경 감사 이시발(李時發)이 치계하기를, “훗날 조정
의 우환은 실로 이들에게 있다.” 하였는데, 이에 자문(咨文)을 무원(撫院) 총
진(總鎮) 등의 아문에 보내 중국 조정에 전문(轉聞)케 하였다. <선조
40/02/01, 1607>

1613년에 이르러는 包占泰의 배신을 문제 삼으며 올라성을 향해서 최후
의 공격에 나서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대부분의 올라 병사가 죽었으며 올라
는 멸망하고 만다. 包占泰는 요행히 살아남아서 홀은 4부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여허로 도망가게 된다.

올라의 멸망 사실은 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7) 함경북도 병사(兵使) 이시언(李時言)이 장계하기를, “호인(胡人)이 와
서 고하기를 ‘노추(奴酋)가 군병을 거느리고 홀자온(忽刺溫)¹⁵⁾의 부성(部城)
을 포위한 다음 운제(雲梯)를 사용해 함락시키자 홀추(忽酋)¹⁶⁾가 탈출하여
북쪽으로 도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홀자온과 노토는 모두 두
만강 밖의 여진(女眞)이다. 두 부가 여러 부를 병합하여 육진(六鎭)의 큰 골
치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노추가 건주(建州)에서 일어나 두 부를 병합하고
군사와 무기를 거두어들임으로써 비로소 강대해져 요동(遼東) 서쪽을 넘볼
뜻을 품었다.】 <광해 05/02/30, 1613>

건주여진은 여허를 향해서 包占泰를 내어 놓으라고 몇 차례 종용 끝에
1619년 여허를 공격하여 굴복을 시킴으로써 건주여진의 해서여진 즉 홀은
4부에 대한 통일의 위업이 달성된다. 이후로는 동해여진과 흑룡강여진을 통
일하여 여진족 전체를 규합하게 되어 후금의 기반이 다져지게 된다.

이상에서 건주여진의 지역 통일을 살펴보았는데 글쓴이의 관심은 누르하

15) 즉 ‘홀라온(忽刺溫)’의 오류이다. 실록의 원문은 필사본으로 되어 있어서 글씨 자체
로는 판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16) 즉 Bujantai를 지칭함.

치와 부잔타이라는 인물에 놓여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부잔타이는 1593년에 누르하치에게 생포된 후, 적이었던 누르하치, 쇼르가치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이들의 도움으로 그의 형이 죽은 후 올라부의 추장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여진 통일의 꿈을 가지고 누르하치와 여러 차례 다투다가 결국 올라부가 망한 후(1613년) 여허로 탈출했다가 그 이후 여허가 멸망하면서(1619년) 그의 운명은 끝이 난다. 이 논문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규합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는데 있어서 만만치 않은 적수가 되었던 인물인 부잔타이에 대해서 사건과 이름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인명표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조선왕조실록의 홀은 주장 인명 기록

2.1. 何叱耳~夏古~夏古伊

여진족은 16세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내부 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전과는 달리 조선과의 접촉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점차로 그 이전보다는 여진족의 소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질이’라고 표기되는 올라 족 홀은의 추장이 조선 변경에 자주 나타나고 전쟁을 일으키곤 하였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조선조의 신경이 온통 누르하치와 하질이에게 쏠려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보는 정확한 것이 없었다.

급기야는 선조 임금의 이 여진족에 대해서 신하에게 묻게 된다.

(8) 상이 이르기를, “홀라온(忽刺溫)은 오랑캐의 별종(別種)인가? 금(金)나라나 원(元)나라의 남은 종족은 아닌가?” 하니, 시발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로는 말갈(靺鞨)이라 하기도 하고, 금나라나 원나라의 유민(遺民)들이라고도 하며, 혹은 여진(女眞)이라고도 하나,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종

조에도 홀라온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금나라의 선조라고 하며 고서(古書)에는 우리 나라 평산(平山) 승려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런 설을 보았다.” 하니, 시발이 아뢰기를, “소신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체로 처음에는 미약한 종족이었는지 몰라도 끝내는 강한 적이 되었습니다. 홀라온이 지금은 글도 배우고 포술(砲術)도 익힌다 하니 나라의 큰 우환거리입니다.” 하였다. <선조 38/06/10, 1605>

홀라온의 변방 출몰이 예삿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추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이름이 보고서마다 다르게 올라오니 이에 대해서도 묻게 된다.

(9) 상이 이르기를, “적추(賊酋)의 이름을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데 어찌 하여 그렇게 많은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하고(夏古)는 소추(小酋)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의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종조 때부터 서북방을 중시한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일 것인데, 조종조 때는 이와 같은 강로(強虜)가 없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 적을 가장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른바 ‘배반은 더디나 화는 크다.’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만일 서북방에서 동시에 도발해와 우리의 힘이 분산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노추(老酋)가 언제 갑자기 도발할지 알 수 없고 하고이(夏古伊)의 흉모도 예측하기 어려우니, 이 적들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선조 38/08/04, 1605>

여기에서 여진족의 이름이 네 번 나오는데 ‘노추(老酋)’는 물론 ‘누르하치’를 이르는 것이요, ‘소추(小酋)’는 누르하치의 동생인 ‘쇼르가치’를 일컫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채를 申忠一이 직접 방문한 바 있었으므로(1595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으나, 막상 알고 싶은 홀라온의 추장 이름은 임금 앞에서 보고할 때조차 ‘하고(夏古)’와 ‘하고이(夏古伊)’로 달리 보고하게 된다. 그런데 2년 전의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 함경북도 병사 이용순이 치계하였다. “홀적(忽賊)이 동관을 에워쌌을 때에 접전한 장사(將士)들이 다 말하기를 ‘전에 홀온(忽溫)과 싸워 그들을 익히 아는데, 이제 적을 보면 장갑(長甲)을 입고 대검(大劍)을 들고 철기(鐵騎)를 타고 달리면서 기휘(旗麾)에 따라 진퇴하는 정상이 홀온과 크게 달라 구황(具滂)을 살해한 적과 비슷하니, 아마도 울호(兀胡)의 군사가 섞여온 듯하다.’ 하기에, 신이 이어서 상세히 물었더니 ‘홀라운(忽刺溫)의 추장은 이름은 하질이(何叱耳)라 하는데 부자타(浮者他)의 아들이며 소라적(小羅赤)의 사위이다.’ 하였습니다. 하질이 울호와 혼인한 친분이 있다면 그 군사가 서로 연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철갑(鐵甲)의 빛이 검기도 하고 붉기도 하며 그 길이가 복사뼈 밑까지 내려오니, 그들은 울호의 군사임이 틀림없을 듯합니다.” <선조 36/09/03, 1603>

여기에서는 하질이(何叱耳)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의 <선조실록> 기사가 <선조수정실록>에는 다르게 되어 있다.

(11) 북병사가 또 치계하기를, “중성에서 적과 접전(接戰)한 장사들이 모두들 ‘일찍이 홀라운과는 싸워봐서 이미 익숙한데, 이제 이 적을 보니 긴 갑옷에 큰 칼을 갖고 철기(鐵騎)로 내달으며 깃발을 신호로 진퇴(進退)하는 모습이 홀라운과 같지 않다. 이는 울호(兀胡)의 군대들이 함께 섞여온 듯하다.’ 합니다. 홀라운의 주장 아질이(阿叱耳)는 부자타(浮者他)의 아들이요¹⁷⁾ 소라적(小羅赤)은 그 사위입니다. 아질이 울호와 혼인한 친분이 있으니, 반드시 그 군대가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철갑이 무릎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아 바로 울호의 군대입니다. 노토(老土)도 울호와 혼인했으니, 역시 악을 도와 이번 일을 돕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울호는 본래 변호(蕃胡)에게 원한을 갚으려 했고 노토도 변호를 습격하려 하니, 우리나라의 방비를 상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선수 36/08/01, 1605>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17) 곧 이어서 논의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12-1) 則忽刺濫魯長, 名曰何叱耳, 乃浮者他子也、 而小羅赤女婿也。 <선조 36/09/03, 1603>

(12-2) 蓋忽刺濫之魯阿叱耳, 乃浮者他子也, 而小羅赤, 乃其女婿也。 <선수 36/08/01, 1605>

이상한 것은 추장의 이름도 ‘何叱耳’와 ‘阿叱耳’로 달라졌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何叱耳’가 옳고 ‘阿叱耳’는 글자 모양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잘못 기록된 것임이 분명해진다.¹⁸⁾ 그러므로 ‘阿叱耳’는 의미 있는 이표기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¹⁹⁾ 한편 소라적을 그의 사위라고 적은 기사도 엄밀하게 보면 소라적의 두 딸과 혼인했으므로 사실과는 다른 말이다.

위의 기사들을 보면 다음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다.

(13-1) “하고(夏古)는 소추(小酋)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의 사위가 되었다.” <선조 38/08/04, 1605>

(13-2) ‘홀라온(忽刺濫)의 추장은 이름은 하질이(何叱耳)라 하는데 부자타(浮者他)의 아들이며 소라적(小羅赤)의 사위이다.’ <선조 36/09/03, 1603>

그렇다면 그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질이(何叱耳)

선조 36년(1603) 1회

선조 38년(1605) 9회

하고(夏古)~하고이(夏古伊)

18) 이러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 비밀비재하다(졸저 2008)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수정본 실록이 오히려 수정을 잘못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 아질이(阿叱耳)는 선조 36년~40년 각 1회, 광해 4년(1612년) 1회 나오므로 총 6회 출현한다.

선조 38년(1605) 각 1회

그러면 여기에서 何叱耳~夏古~夏古伊는 무엇을 표기했기에 얼핏 보아서 다소 어긋난 표기가 나타났나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2. 夫者太~卜章台~夫者卓古~夫者漢古

위의 ‘何叱耳’계 인명과는 달리 같은 사람이 부자탁고(夫者卓古) 또는 부자한고(夫者漢古)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이 보고된다.

(14) 노추(老酋)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북변(北邊) 변호(藩胡)가 말하기를 ‘홀온추(忽溫酋)의 이름은 부자탁고(夫者卓古)인데, 부자한고(夫者漢古)라고 칭하기도 하고 탁고(卓古)나 한고(漢古)라고만 칭하기도 한다.

【탁(卓)과 한(漢) 두 음(音)은 호인의 전한 말이 서로 같지 않아서 그러한 듯하다.】 나이는 40세쯤 되었고 몸은 보통이고 얼굴은 약간 얇았는데, 사납고 용맹스럽기가 비길 데 없다. 노·소추(老少酋), 나리(羅里) 등과 항시 사신을 통하여 호의를 다졌고, 두 딸을 아내로 주었다. 탁고와 나리는 거주지가 가깝고 원래 4촌 형제 간으로 친분이 가장 두텁다. <선조 38/07/16, 1605>

이 기록에서도 ‘홀온추(忽溫酋)’이고 ‘두 딸을 아내로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건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시점에서 위에서 본 대로 선조가 역정 섞인 질문을 하게 된다.

(9) 상이 이르기를, “적추(賊酋)의 이름을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가?” <선조 38/08/04, 1605>

몇 개월 후에 임금의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된다.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는데 ‘하질이’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며 그의 본명은 북장태(卜章台)라는

사실이다.

(15) 유영경이 아뢰기를, “이는 호기를 부리는 말입니다. 또 이 호인은 왕태(王太)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질이란 것은 호인의 본명(本名)이 아니라 곧 좌궁(左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복장태(卜章台)인데 형인 복안태(卜安台)가 죽은 후 그 아들이 항상 장태가 부귀를 누리지 못할 것을 비웃자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복안태의 딸이 노가적(老可赤)의 아내가 되어 일가(一家)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선조 38/11/03, 1605>

실로 오랜 기간 동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끝내고 서로 달라 보인 두 가지 계통의 이름 즉 ‘何叱耳’계의 이름과 ‘卜章台’계의 이름이 동일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더욱 괴이한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이미 10년 전에 임금에게 정확하게 보고된 바 있다는 점이다(아래의 것은 모두 申忠一의 건주여진 방문 보고서인 <建州紀程圖記>를 실록에서 인용한 부분에 나타난다. 위에서 인용한 (4)와 (5)도 참고할 것).

(16) 여허(如許)의 추장(酋長)인 부자(夫者)와 나리(羅里) 형제가 노추의 강성을 걱정한 끝에 몽고왕 나팔(刺八)과 올라(兀刺)의 추장 부자태(夫者太) 등의 군사를 청하여 계사년(1593) 9월에 내침하였는데, 노추가 군사를 거느리고 허제(虛諸) 부락을 에워싸고 싸워 여허(如許)의 군사를 대패시켰으므로 부자는 전사하고 나리는 도주하였으며, 부자태는 투항하였으므로 노획한 인축(人畜)과 갑주(甲冑)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선조 29/01/30, 1596>

즉 1593년의 전투에서 항복하여 누르하치의 거소인 펌알라(費阿拉)에 거주하고 있는 올라(兀刺)의 추장 부자태(夫者太)의 모습을 직접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인데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인물이 지금 변경을 어지럽히고 있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1603년의 기록 중에는

비슷한(아마도 동일한) 인물인 ‘부자타(浮者他)’라는 인명이 보이지만 ‘하질이’와 동일시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13-2) ‘홀라온(忽刺溫)의 추장은 이름은 하질이(何叱耳)라 하는데 부자타(浮者他)의 아들이며 소라적(小羅赤)의 사위이다.’ <선조 36/09/03, 1603>

이 외에도 실록에는 홀추(忽脣) 즉 홀라온부 추장, 또는 하추(何脣) 즉 하질이(何叱耳) 추장, 또는 하호(何胡)로도 자주 기록되어 있다. 그는 누르하치와 자웅을 겨루는 전투를 치르면서도 조선 쪽에 부하를 보내어서 직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7) 북병사(北兵使) 김종득(金宗得)이 아뢰었다. “(중략) ‘탁두(卓斗)가 그의 가호(家胡) 보을지(甫乙之)를 시켜 진고(進告)하기를 「부득이하여 홀추(忽脣)의 소식을 전한다. 홀추가 그의 장수 자을고사를 시켜 동관(潼關)에서 포로가 된 통사(通事) 이부기를 데리고 사서(私書) 1통을 가지고 시배(時排)에 와서 온성관(穩城官)에 전달하게 하였으므로 보을지로 하여금 이부기와 함께 들어가게 했다.」하였다.’ 하였습니다.

홀추의 말은 대개 직첩을 구하는 일이었고, 이부기의 말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약간을 쇄납(刷納)하고 나서 정성스럽게 직첩을 구한다면 허락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혹 다수를 쇄납하고 휘호(麾胡) 등의 직을 받고자 한다면 또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선조 38/07/07, 1605년>

한편 만주인의 기록인 만문노당(滿文老檔)에는 그의 이름이 Bujantai로 나타난다.

(18) Muse tuttu ujifi ula i gurun de unggifi ejen obuha niyalma kai, ere bujantai musei gala ci tucike niyalma kai, jalan goidahakūbi.(우리가 그렇게 부양하다가 올라국으로 보내어 왕이 된 사람이다. 이 부잔타이가 우리 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오래 전의 일도 아니다.) <滿文老檔 太祖 1607년 3월>

(19) Dain de bahafi jafari wara beyebe ujihe bujantai, ilan jui be buhe ilan jergi hojihon bujantai, nadan jergi gashūha bujantai gūwalyafi, ... (전쟁에서 생포하여 죽일 목숨을 살려줬던 부잔타이, 세 명의 딸을 주어 세 번 사위였던 부잔타이, 일곱 번 맹세하였던 부잔타이가 변심을 하여서 ... <滿文老檔 太祖 1611년 2월>

2.3. 추장 인명 종합

이상에서 보면 이 추장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 인명(실록)

夫者太~卜章台~浮者他~夫者卓古~夫者漢古

(나) 별명(실록)

何叱耳~夏古~夏古伊

(다) 중국측

包占泰

(라) 만주측

Bujantai

그는 올라부(또는 홀라운부, 홀온부)의 추장이었으며 그의 행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593년 소라적(老可赤의 동생)에게 항복

1596년 석방된 후 올라부로 돌아감. 여동생을 소라적에게 시집 보냄

1598년 소라적의 딸과 결혼

1601년 부잔타이의 질녀(형 만태의 딸)를 누르하치에게 시집 보냄²⁰⁾

1603~1605년 <실록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점>

1603년 재차 소라적의 딸과 결혼

20)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선조 38/11/03, 1605>)에는 ‘만태(滿泰)’가 ‘만태(晩太)’ 또는 ‘복안태(卜安台)’로 기록되어 있다.

1608년 누르하치의 제4녀와 결혼

1613년 올라부가 망한 후에 여허부(葉赫部)로 감(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음)

1619년 여허부 멸망, 건주여진이 해서여진 통일

3. 하질이(何叱耳)에 대한 풀이

지금까지 보았듯이 올라부의 주장 ‘부잔타이’는 조선왕조 실록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의 정확한 이름과 신분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 이전과는 달리 여진족의 세력이 커지면서 조선에 자주 왕래 하던 여진족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다른 한편 여진족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을 하면서 조선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유영경(柳永慶)의 다음과 같은 보고에 의하여 그의 이름에 얽힌 복잡하던 상황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이 정도의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도 변방의 관리들은 온 힘을 다하여 여진족이나 중국 즉 명의 변방 관리 등을 통해서 정보를 모았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하질이란 것은 호인의 본명(本名)이 아니라 곧 좌궁(左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복장태(卜章台)인데 … <선조 38/11/03, 1605>

여기에서 ‘복장태(卜章台)’라는 인명은 중국측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당시 한어로 읽어야 /bujan(g)tai/라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夫者太~卜章台~浮者他~夫者卓古~夫者漢古의 이표기는 Bujantai를 다소 부정확하게 표기한 것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²¹⁾ 이하에서는 ‘何叱耳’

21) 익명의 심사자는 이 이름 중에서 ‘夫者卓古, 夫者漢古’의 ‘卓古, 漢古’는 아래에서 논의할 ‘hashū’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글쓴이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卓古’는 음상이 너무 다르며 ‘漢古’의 경우에도 제1

계의 표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하질이(何叱耳)가 左弓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左弓이라는 것은 왼쪽 팔로 활을 쏜다는 의미이다. 당시 만주인들도 활을 쏘 때 오른 팔로 쏘는 것이 다수였던 것 같다. 따라서 왼 팔로 활을 쏘는 것은 그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왼손잡이’라는 의미에서 별명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는 만주말인데 ‘왼손잡이(左手射)’라는 단어는 ‘hasutai’이다. 그런데 이 단어보다는 단순히 왼쪽을 나타내는 단어가 음상으로 보아 더 가까운 것 같다. 즉 만주어에서 왼쪽은 ‘hashū’이다. 하질이(何叱耳)는 hashū 또는 hasutai 중에서 hashū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최초는 아니지만 매우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자국어-자국어 풀이 사전’ 즉 ‘만주어-만주어 사전’인 御製清文鑑(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 (1708년 序)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²²⁾

- (20) ice(오른쪽): jebele(箭袋, 撒袋) ergi be, ici ergi sembi
hashū(왼쪽): dashūwan(弓袋) ergi be, hashū ergi sembi

만주어 사전의 오른쪽, 왼쪽의 정의가 다른 사전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을 알 수가 있다.²³⁾ 이들의 수렵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

음절의 [n]이 석연치 않다. 결국은 어느 경우에도 부정확한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 이 사전의 특성과 뜻풀이에 대해서는 정제문·김주원(2008) 참조.

23)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전들의 ‘오른쪽’과 ‘왼쪽’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2)

오른 쪽: 북쪽을 향한 때의 동쪽과 같게 된 쪽.

왼 쪽: 북쪽을 향한 때의 서쪽과 같게 된 쪽.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두산동아, 2000)

오른 쪽: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동쪽과 같은 쪽.

왼 쪽: 북쪽을 향하였을 때의 서쪽과 같은 쪽.

조선말 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오른 쪽: 북쪽을 향한 때의 동쪽과 같은 쪽.

왼 쪽: 북쪽을 향한 때의 서쪽과 같은 쪽.

现代汉语词典(商务印书馆, 1979)

운 정의라고 할 수 있다.

- (20) 오른쪽: 화살통을 메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한다.
 왼쪽: 활주머니를 메는 쪽을 왼쪽이라고 한다.

어찌되었건 ‘하질이(何叱耳)’는 왼쪽이라는 의미인 ‘hashū’를 표기한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진족의 이름은 거의 예외 없이 음借 표기로 한다. 다음은 그 중의 한 예인 ‘누르하치’의 표기 예이다.

- (21) 老可赤, 奴可赤, 老加赤, 老羅赤, 奴兒合赤, 奴兒哈赤, 盧兒哈赤, 老乙可赤

그런데 이 예는 음借와 訓借가 섞인 표기로서 매우 이례적인 표기이다. 위에서 보듯이 하질이(何叱耳)는 ‘左弓’ 즉 /hashū/라는 만주말을 표기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22) 何 ↔ ha
 叱 ↔ s
 耳 ↔ hū

여기에서 ‘何 ↔ ha’와 ‘叱 ↔ s’의 대응은 문제가 없다. 何는 음차 표기

右: 面向南時靠西的一边.

左: 面向南時靠东的一边.

廣辭苑(岩波書店, 第3版, 1986)

左: 南を向いたとき、東にあたる方.

右: 南を向いたとき、西にあたる方.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3rd ed. Macmillan, 1996)

right: designating or of that side of one's body which is toward the east when one faces north, the side of the more used hand in most people.

left: designating or of that side of one's body which is toward the west when one faces north, the side of the less-used hand in most people.

이며 *hū*는 전통적으로 <ㅍ>을 표기해온 글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hū* ↔ *hū*’의 대응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주어 음운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耳]는 <귀> 즉 /kuj/이므로 [何吡耳]라는 표기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hasgui/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주어와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보인다.

(23) 만주어 ↔ 실록 표기

ha ↔ *ha*(何)

s ↔ *s*(吡)

hū ↔ *guij*(耳)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h*와 *g*의 대응은 만주어가 기록되기 시작한 초기 자료에서부터 보이는 현상(성백인 1990: 40-55)으로 아마도 /*h*/와 /*g*/가 자유 교체하는 방언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h*/의 변이음이 [ɣ]로 실현된 것을 [g]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나) *hū* ↔ *guij*의 대응은 자음, 모음 차이는 놓아 두고라도 어말에 반모음 /*j*/가 붙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반모음 /*j*/가 덧붙는 현상도 조선인의 만주어 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김주원·이동은 2004: 52 참고).

(24) “야인(野人)들이 구멍[孔]을 ‘쌍포(雙浦)’라고 부르는데, 이 땅이 일찍이 야인에게 점거당한 바가 되었으므로, 지금 그대로 이름한 것이다.
<세종 155 지리지>

(25) 滿 *sangga*, (어제증정청문감 2:36b, 한청문감 1:40b) ‘窟窿 통칭 구무’

이는 ‘합개 승浦(龍飛御天歌 — 49)’에서 보듯이 *gai*를 한자 ‘浦’로 표기

한 것이다. 유사한 예로 18세기에 愁州(지금의 함경북도 鐘城)에서 기록된 [淸學音]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발견된다.

(26) 朝鮮 솔괴, 솔고(참고 Ma. solgo) 靈古塔 닝구태(참고 Ma. Ningguta)

한편 여진족의 인명을 표기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j/첨가 자료가 빈번하게 발견된다(졸저 2008).

(27) 阿亡哈~阿亡介, 羅郎可~羅郎介

한편 아래의 이표기는 만주어 음운사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하교(夏古)~하교이(夏古伊)

즉 위에서 본대로 모음이 /우/가 아니고 /오/인 점에서 특이하다. 이는 만주어의 /ü/모음의 음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ü/는 한국인에게는 [우]로도 들릴 수 있고 [오]로도 들릴 수 있는 소리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만주어뿐만 아니라 몽골어 청취 자료를 포함하여 매우 풍부한 자료가 있다(졸고 1990). 여기에서는 반복하여 논하지 않는다.

한편 ‘하교(夏古)’는 /ㅅ/을 생략하고 표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질이(阿叱耳)’는 ‘何叱耳’와 비교해 볼 때 글자의 유사성으로 인한 표기의 오류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여진족의 한 주장의 인명 표기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의 이름은 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부자태(夫者太), 복장태(卜章台), 부자탁고(夫者卓古), 부자한고(夫者漢古)
하질이(何叱耳), 아질이(阿叱耳), 하고(夏古), 하고이(夏古伊)

여기에서 부자태(夫者太)계의 이름은 본명이며 Bujantai를 표기한 것이다. 한편 하질이(何叱耳)계의 이름은 그의 별명으로서 만주어의 ‘왼쪽’을 뜻하는 ‘hashū’를 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밝힘과 동시에 ‘하질이(何叱耳)’가 ‘hashū’를 표기한 것이라는 근거를 만주어 음운사에 기대어 밝혔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010.01.31.
- 김주원(1990), 만주어 모음체계의 변천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2: 1-25, 한국알타이학회.
- 김주원(2008), 《조선왕조실록의 여진족 족명과 인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주원 · 이동은(2004),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女眞語 滿洲통구스어, 《알타이학보》 14: 43-64, 한국알타이학회.
- 성백인(1990), 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알타이학보》 2: 27-69, 한국알타이학회.
- 정계문 · 김주원(2008), 만주어 사전 《御製清文鑑》(1708 序)의 연구—그 뜻풀이에 주목하며—, 언어학 52: 117-143, 한국언어학회.
- 閻崇年(1983), 《努爾哈赤傳》, 北京: 北京出版社.
- 今西春秋 역(1992), 《滿和蒙和對譯 滿洲實錄》, 東京: 刀水書房.
- 滿文老檔研究會(1955), 《滿文老檔 I 太祖 1》, 東京: 東洋文庫.
- Kim Juwon(2010), An Examination of Chinese Character Transcriptions of Jurchen and Manchu Personal Names As Reflected in the *Annals of the Chosen Dynasty*, *Scripta* No.2: 85-114. Hunmin jeongeum Society.

원고 접수일: 2010년 10월 7일

심사 완료일: 2010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0년 11월 15일

ABSTRACT

On a Name of Jurchen Chieftain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Kim, Juwon

In this paper a transcription of the name of a Jurchen chieftain is discussed. All proper names of the Jurchens including personal names are recorded in Chinese character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ost of them are written using sound of the Chinese characters. But the name of one chieftain was written using semantic value of the Chinese characters. At the first time his identity was confusing to Korean as his name was called differently. Among these names there were 何叱耳 <ha-jil-i>. These Chinese characters represents ‘hashū’, the meaning of which is “left handed” in Jurchen(Manchu).